

2015년 9월 19일 3차 경찰공무원 영어해설

해설: 강수정(공단기)

총평

시험 보느라 수고가 많으셨죠. 이번 경찰 3차 시험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어휘가 어렵고 나머지 영역은 평이했습니다. 독해의 지문이 길긴 했지만, 핵심만 파악하면 꼬아 두거나 애매한 문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난이도 상으로 분류될 만한 것이 없었고요.

어휘	구동사와 회화	문법	독해
3문제	2문제	5문제	8문제

경찰영어시험에서 80점 이상을 맞으려면,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에 나올만한 지문을 정확하게 읽고 내용의 요점을 알 수 있는 실력을 갖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찰 시험은 일반행정직과 달리 까다로운 문법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기본문법과 어휘를 튼튼히 하는데 집중하면 80점 이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독해를 할 때마다 첫 문장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서, 그 다음 무슨 이야기를 할지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독해점수도 잘 나올거예요. 자세한 해설은 강의로 하겠습니다.

정답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③	④	④	②	②	①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③	④	③	④	②	④	②

해설

1[어휘] 난이도 상

해설 extraordinary는 평범한 것을 넘어서는(extra=over) 대단히 훌륭한 것을 뜻하고, exceptional이 '예외적으로 훌륭한'을 뜻한다. 영어에서는 특이하고 드문 것을 훌륭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어구 precedented (PW 040) 선례가 있는, obsolete (PW 407) 더 이상 쓰이지 않는, unremarkable 특별히 표시할 것이 없는, 평범한

2 [어휘] 난이도 상

해설 감옥에 간 이유는 그의 행동에 대해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빈칸에는 긍정적인 단어가 필요하다. discreet는 '분별력'을 뜻하는 discretion(PW 024)의 형용사형으로 분별있는(dis=apart, creet=separate)을 뜻하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어구 distributed 분배된, distilled 증류된, distorted(PW 079) 왜곡된

3 [구동사] 난이도 하

해설 take after는 대상인 사람이나 사물 뒤에서(after) 특성들을 잡는다(take)는 뜻에서 ‘닮다’를 뜻한다.

4 [문법_전치사] 난이도 하

해설 ‘~에 따르면’은 according to sth으로 표현하고, prefer는 선호하는 대상 뒤에 비교대상을 to로 소개하는 동사이다(prefer sth to sth).

5 [문법_전치사] 난이도 중

해설 ‘~에 대해 책임이 있는’은 be responsible for sth으로 표현한다. commit(PW 135)은 ‘~에 바쳐져 있다’라는 뜻을 be committed to sth으로 표현한다.

6 [어휘] 난이도 중

해설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은 이유를 be fined for 뒤에 써야하니까, 빈칸에는 부정적인 명사를 써야한다. contempt는 ‘경멸’을 뜻하므로 정답이다.

어구 continent 대륙, convince (PW 315) 설득하다

7 [문법_형용사절] 난이도 하

해설 내가 주당 세 번 에어로빅을 하고, 그것(내가 운동한다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주절과 종속절을 이어주는 접속사로는 앞절 내용을 전부 대신하는 컴마 which를 써야한다. whom과 who는 사람을 대신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 what은 명사절만 시작하므로 형용사절을 시작할 수 없다.

8 [회화] 난이도 중

해설 A가 호텔 앞에서 지갑을 강도질 당했다고 하자, 경관(officer)인 B는 ‘알겠고, 서류를 작성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

어구 be robbed of sth ~을 강도질당하다, fill sth out ~을 작성하다, instruction (PW 326) 지시사항

9 [문법_능동태와 수동태] 난이도 중

해설 (ㄱ)은 ‘find 대상 대상보어’를 써서 대상이 대상보어인 상태임을 발견한다는 말을 완성해야 한다. 그의 차는 ‘주차된’ 상태이므로 parked가 필요하다. (ㄴ)은 they find의 세 번째 대상인 a gun을 설명하는 with one shell fired가 필요한 자리이다. with는 전치사의 대상인 명사 뒤에 대상을 설명하는 서술어를 써서 ‘대상이 대상보어인 상태를 가진’이라는 의미를 만들며, 이를 ‘부대상황’이라 한다. (ㄷ)은 주어인 the minister(장관)이 ‘실종된, 없어진’ 상태라는 뜻의 형용사를 써야한다. missing은 ‘어디 갔지?’라는 우리말처럼 ‘실종된’을 뜻하고, missed는 ‘(목표물을) 놓친’을 뜻하므로 답은 missing이다.

10 [문법_준동사] 난이도 중

해설 ‘소용없다’는 ‘~을 해봤자’라는 말과 함께 다닌다. ‘~해봤자’라는 말은 하란 말이 아니므로 Ving형으로 표현해야한다. toV는 주어나 대상이 ‘할’ 활동을 소개하기 때문이다. 또, try 뒤에 ‘아무리 노력해도’에 해당하는 말은 toV로 표현해야한다. Ving는 ‘한 활동’ 또는 ‘일반적인 활동’을

표현한다.

11 [어휘] 난이도 중

해설 빈칸에는 '지문과 여권을 _____하다'에 해당하는 말을 넣어야 하니까, '위조하다'라는 의미를 추측하고 선택항을 보면, forge의 뜻을 모르더라도 다른 단어들의 뜻을 아니까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다.

12 [독해_빈칸완성] 난이도 하

해설 빈칸을 포함한 첫 문장만 잘 읽어보면, '학생들은 믿지 않으려 한다/ (믿어야 할 내용) 선생도 인간이다/ 인간의 약점을 가진'. 이렇게 빈칸에는 부정적인 명사를 써야한다. 따라서 답은 weakness이다.

어구 merit 장점, perseverance 끈질김, 인내

13 [독해_빈칸완성] 난이도 하

해설 빈칸 앞을 보면, '이 속담이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라고 말하므로, 이 문장 바로 앞에 있는 속담의 뜻을 알아낸다. '한 다리있는 동네에서는 한다리로 다녀라'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른다는 말과 같다.

14 [독해_세부사항] 난이도 중

해설 첫 문장에서 a strong-arm robbery라는 글의 주제를 알아내고 선택항의 요점을 본다. ① 두명의 남자, ② 피해자는 20대 백인여성, ③ 용의자 발견, ④ 다치지 않음. 본문의 결론을 내리는 마지막 문장을 보면, '희생자는 다치지 않았고, 용의자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하므로 답은 ③이다.

15 [독해_세부사항] 난이도 중

해설 첫 문장에서 등산복 같은 옷에 곰팡이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선택항의 요점을 보면 ① 곰팡이 생길 수 있음, ② 왁스로 방수가능, ③ 왁스에 문제 있음, ④ 실리콘 스프레이가 더 비쌌. 다들 말이 되는 것 같으므로, 본문의 이곳 저곳을 보면, 왁스의 문제점들을 설명한 후 a better method로 실리콘 왁스를 소개하고 inexpensive하다고 했으므로, 답은 ④이다.

16 [독해_세부사항] 난이도 하

해설 첫 문장에서 감정의 적응적 가치를 말하겠다고 밝혔다. 선택항의 요점을 보면 ① '전혀 다른 것'은 아님, ② '아무 영향을 주지 않음' 틀림, ③ '걱정이 유익할 수 있음'은 옳음. ④ '걱정'을 없앨 수 없고 또 완전히 나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틀림으로 판단을 바로 할 수 있다.

17 [독해_세부사항] 난이도 중

해설 유죄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가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설명하는 글이다. 선택항의 요점을 보자. ①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유죄'를 입증해야하므로 틀린 진술이다. ② '최소한의 희생'이란 무척 위험한 표현이므로 보류한다. ③ '의심할 여지가 없다'도 무척 주관적인 표현이므로 보류한다. ④ 무고한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이 원칙의 핵심이므로 정답이다.

다.

18 [독해_주제] 난이도 중

해설 “black swan event, upside down, economics”라는 키워드를 첫 문장에서 잡으면, 백조는 원래 흰색이지만, 뒤집혀진 듯이 검은 백조가 생기는 것 같은 일이 경제에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택항의 요점을 보면, ②가 바로 정답으로 보이고 본문의 마지막 문장을 잠깐 읽어서 답을 확실히 하자.

19. [독해_주제] 난이도 중

해설 첫 문장에서 천년과 천 오백년 사이 동반구에서 활발한 교역이 있었다는 요점을 찾으면 바로 답을 할 수 있다. 이때, 그 기간에 고려인들이 아라비아로 교역을 했고, 그때 Korea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것을 생각하면 답을 찾기 매우 수월해 진다.

20. [독해_빈칸완성] 난이도 중

해설 빈칸을 포함한 문장만 읽어도 ‘공격적 운전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위태롭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어리석게 행동하고 운전함으로써 (나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거친 운전자들의 나쁜 행동을 써야한다. hazard (PW 006) 위험